

본 브리핑은 페로타임즈 편집국에서 매주 발간하는 Report입니다.  
원료, 가격, 해외동향 등을 유료회원에게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주간 시황 Report

2021. 04. 03. 제 43 호



**페로타임즈**  
F E R R O T I M E S

## ( 요약 )

### 1. 4월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4월 철강 ‘피크시즌’ 원료 동반 강세 전망
- 中 수출세 조정/글로벌 철강 부족 ‘가격 뒷받침’
- ‘경험하지 못한 업황’, 조정가능 관측은 ‘기우(杞憂)’
- 중국발 철강·원료 2차 급등 “끝이 아닌 시작”

### 2. 철광석

- 중국 철강 공급부족과 증산, 글로벌 회복 지속…철광석 가격 강세 견인
- 4월 2일 기준 166달러…170달러대 1차 목표 상승 중

### 3. 철스크랩

- 글로벌 철스크랩 가격 반등…터키 HMS 수입가 CFR 430달러, 15달러 ↑
- 한국 수입원가 부담 국내 가격 상승 전망…제강사 4월 인상 돌입 관측

### 4. 철강재

- 글로벌 철강시장 “경험하지 못한 업황”
- 한국 시장 4월 추가 상승 가능
  - 본계강철 한국향 오피 동결 열연 FOB 750달러/냉연 850달러
  - 중국산 현지 오피 열연 FOB 770달러, 철근 680달러
- 중국 철강 가격 선행 급등…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상승 ‘부채질’  
상해 내수가 4월 2일 열연 5590위안, 철근 5010위안 주간 380, 240위안 ↑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시황분석리포트

## 2021년 4월 1주차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FERRO INDEX] 철강재 및 원료 가격 종합

단위 : 달러/톤, CFR

구분			3-1주	3-4주	3-5주	변동폭	
						일주일	1개월
철광석 원료탄	글로벌	Fe 62%	176	160	166	7	-10
		강점결탄	217	213	214	1	-3
철스크랩	미국산	터키 HMS 1&2	440	418	430	13	-10
		호 HMS 1&2	475	438	442	4	-33
		대만 컨테이너	430	390	401	11	-29
	일본산	일본 H2 (백엔 FOB)	449	410	410	0	-39
		*H2 한국도착(천원)	502	460	460	0	-42
	중국 내수	45개 도시 평균 (위안)	2,990	2,912	2,946	34	-44
		(달러)	461	445	448	3	-13
중국 철강재	열연	본계강철 한국향(FOB)	765	765	750	-15	-15
		중국 오퍼(FOB)	721	753	770	17	49
		중국 내수 가격(위안)	5,040	5,210	5,590	380	550
	냉연	냉연코일(FOB)	840	840	850	10	10
		아연도금 아연도금코일(FOB)	880	880	890	10	10
	철근	사강강철 한국향(CFR)	705	705	705	0	0
		중국 오퍼(FOB)	676	671	680	9	4
반제품	빌릿	흑해 수출(FOB)	580	563	568	5	-12
	슬래브	브라질 수출(FOB)	750	795	795	0	45
한국 철강재	한국 유통 가격	열연(포스코산)	92	95	95	0	3
		(중국산)	91	94	94	0	3
		철근(국산)	75	76	77	1	2
		(중국산)	75	79	81	2	6
		형강(국산)	89	89	89	0	0
		(포스코베트남)	87	87	87	0	0
		앵글 잔널(국산)	84	84	84	0	0
		앵글(수입산)	75	73	73	0	-2
		잔널(수입산)	77	75	75	0	-2

- 철광석 원료탄 : 스폿계약 3/29~4/2일 평균
- 한국 품목별 유통가격 : 페로타임즈 자체조사, 각 품목 베이스 기준
- 철스크랩 : 최근 성약 및 오퍼 가격/페로타임즈 추정 \*한국 도착 가격은 운임/환율 등에 영향  
중국 내수 : 전국 평균 4월 2일 기준
- 중국 오퍼 : 무역업계 및 외신, 페로타임즈 추정/중국 내수 가격 : 상해 4월 2일 기준
- 한국향 : 열연 냉연 도금재(본계강철 매주 1회), 철근(사강강철 월초 1회)
- 반제품 : 빌릿(플래츠 기준), 슬래브(AMM 기준)

※ 최종 업데이트 4월 3일

\*. 제공 : (주)페로타임즈

**4월 철강 '피크시즌' 원료 동반 강세 전망**  
**中 수출세 조정/글로벌 철강부족 '가격 뒷받침'**  
**경험하지 못한 업황 '조정가능' 관측은 기우(杞憂)**

글로벌 철강 가격을 중국을 중심으로 폭등세를 나타냅니다.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시장은 공급부족, 수요회복, 원료 및 철강 급등, 특히 중국의 수출감소(한국 수입 급감) 등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의 경험하지 못한 업황을 과거 경험치로 재단하는 기우(杞憂)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철강 재고는 글로벌 전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 역시 열연, 철근, 후판, 냉연도금재, 특수강 등에 걸쳐 시중 재고가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웃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게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가격은 글로벌 전역의 철강 공급부족과 함께 운임 급등 등에 따라 강세로 무게가 쏠립니다.

현재의 심각한 부족 현상은 최소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수요 회복 시점과 공급 정상화에 시차가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수요 회복은 작년 4분기부터, 공급 회복은 2개월 지연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유통이나 실수요는 철강 메이커에 주문 뒤 2개월 뒤에나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요는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지만, 특정 시점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급등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월은 계절적 성수기 '피크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고로사를 중심으로 철강 메이커들의 생산은 활발해집니다. 철강 가격은 크게 인상됐고, 마진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이익은 1~2월 전년 대비 179% 폭증했고, 제조업은 219.5%, 철강 및 가공 부문은 271% 증가했습니다.

철강을 많이 생산하면 실적도 높일 수 있는 '호황'이 전개되는 셈이죠.

특히 중국은 친환경 정책 기조 아래 생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4월10일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낮출 전망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로, 현지 보도를 통해 열연 철근 후판, 산세강판은 13%에서 0%로 사실상 폐지하고, 냉연도금재는 4%로 낮출 것이라는 소식이 현실성 있게 거론됩니다.

일각에서 6월 전후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 비수기 전, 또 상승국면이 2개월 내외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철강업계가 '잃어버린 2020년'을 만회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수급, 가격 측면에서 강세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철강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2021년 회복, 2022년 안정적인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뉴노멀(New Nomal)', 새로운 가격대에서 강세장이 유지될 가능성에 주목됩니다. 현재 철광석은 170달러, 철스크랩 500달러, 철강재(열연기준) 800달러 장세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임 급등은 철강사, 수입업체,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가를 높이는 핵심 원인으로,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조정 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HOT ISSUE]

[이슈해설] 중국발 철강·원료 2차 급등 “끝이 아닌 시작”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3>

페로타임즈 3월31일자

중국발(發) 철강 가격 급등이 다시 시작됐다. 올해 상승폭은 1400위안(25만 원)에 달한다. 정부의 생산억제는 철강재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공급은 사상 최대로 예측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은 철강사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되면서 증산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감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에서의 생산 증가는 철광석 수요 및 가격을 견인했다. 철광석 가격은 다시 170달러대를 1차 목표 지점으로 상승 중이다.

중국 제철소들은 현재 증산기조가 뚜렷하다. 공급부족과 수요증가가 그 배경이다.

상해 열연 가격은 이번주 시작인 29일 5360위안(815달러)을 기록했다. 하루 사이 150위안(23달러) 급등했다. 1월 말 대비로는 800위안(122달러) 폭등한 수치다. 2월 초 4500위안에 서 양회(兩會) 전후 5000위안(12일)대로 올라선 뒤 최근 2차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업황 개선은 작년 4분기부터 일어났다. 분기 첫 시작인 10월 1일 열연 가격은 3920위안에 서 12월21일 5100위안까지 폭등했다. 1월 일시적인 조정을 거쳤지만, 2월과 3월 현재 시장 심리 회복과 개선에 대한 확신이 업황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철강을 중심으로 중국 제조업 부문의 이익을 대폭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된다. 최근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이익은 1~2월 전년 대비 179% 폭증했다. 제조업은 219.5%, 철강 및 가공 부문은 271%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기준 중국 5대 철강재 유통 재고는 2547만 톤을 기록했다. 일주일 새 126만 톤 감소했다. 3월 초 2768만 톤에서 감소세를 지속했고, 그 폭은 더 확대됐다. 전년 동기 와 비교하면 430만 톤 적은 양이다.

철강재 가격 인상은 원활하게 반영되고, 제철소들은 증산기조를 키우는 배경이다.

철광석은 다시 고공행진이다. 29일 철광석(Fe 62%) 수입 가격은 CFR 톤당 167.3달러로 하루 사이 3.7%(5.9달러) 급등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5%(11.2달러)나 올랐다.

호주의 투자회사인 트리베카(Tribeca Global Natural Resources)의 벤 클리어리(Ben Cleary)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것은 끝이 아니라 붐(boom)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시장도 비슷하다. 특히 중국산 등 수입 감소, 신규 계약 중단으로 4월 수급은 더 타이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된 관측이다. 철강 시장은 열연, 후판, 냉연도금재, 철근, 컬러강판, 특수강 등 전 품목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요는 올해 코로나19 회복세가 계속되고, 내년은 올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강사들의 실적은 안정된 수요와 높은 가격이 뒷받침할 전망이다. 실제 철광석, 철스크랩(고철) 등 원료 급등은 소재 성격의 열연은 물론 냉연은 물론 컬러강판에 이르기까지 가격 인상 반영이 비교적 원활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 역시 강한 회복세를 배경으로 열연 가격이 1400달러에 육박한다. 브라질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변수로 지목된다. 대부분의 국가도 위험성이 상존하지만 산업활동 회복세에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철강업황을 지지하고 있다.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 철광석

### 중국 철강 공급부족과 증산, 글로벌 회복 지속 철광석 가격 강세 견인

철광석 가격은 강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조강생산)는 호조가 계속되고, 특히 철강재 공급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 유통재고는 작년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4월 성수기 진입에 따른 생산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달 25일 일시적으로 CFR 159달러까지 조정된 이후 이달 2일 기준 166달러까지 빠르게 회복됐다. 주간(3/29~4/2) 평균 가격은 166달러로 일주일 새 4.1% 상승했다.

중국 45개 항구의 철광석 재고는 2일 기준 1억3130만 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4월 첫 주 1억1700만 톤보다 1440만 톤 많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철강 공급부족, 고로의 증산에 있다. 철광석 수요는 글로벌 전역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 철광석 원료탄 싯물구매원가 : 4월2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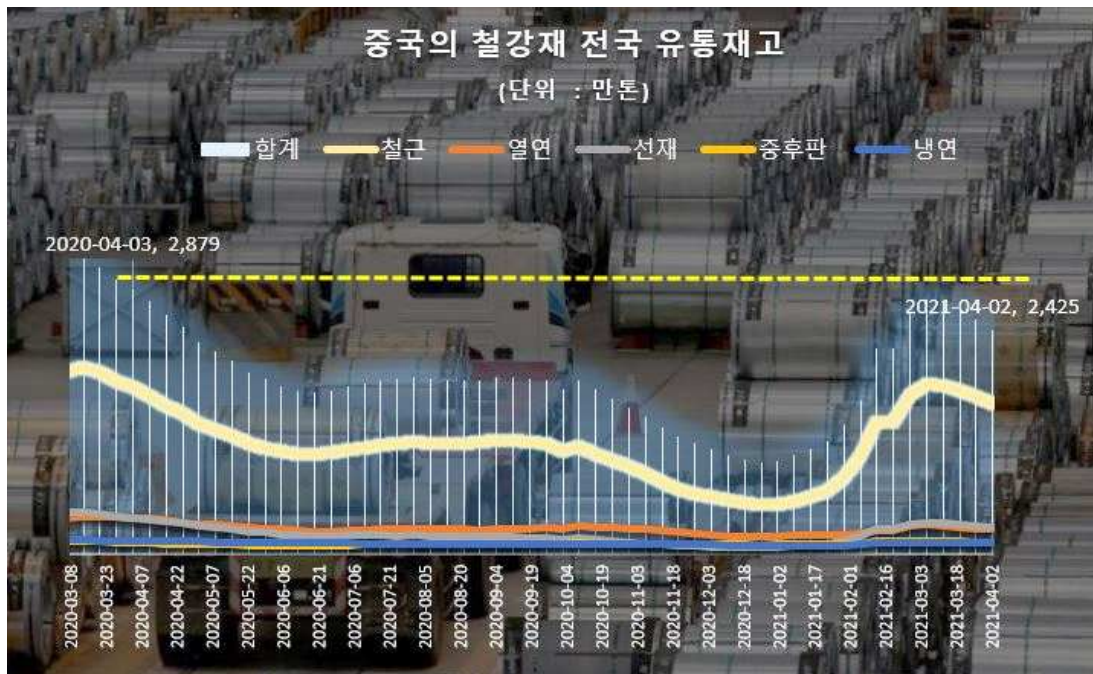
단위 : 달러/톤	중국 수입		싯물구매원가
	철광석(Fe 62%)	원료탄(강점결탄)	
2021-01-29	157.8	217.73	428.7
2021-02-26	176.3	218.55	459.2
2021-03-26	161.4	212.71	430.4
2021-03-29	167.3	213.5	440.6
2021-03-30	167.3	213.56	440.6
2021-03-31	164.3	214.15	436.2
2021-04-01	166.1	214.21	439.3
2021-04-02	166.1	214.21	439.3
전주 대비	2.9%	0.7%	2.1%
	4.8	1.5	8.9
2월 말 대비	-5.8%	-2.0%	-4.3%
	-10.2	-4.3	-19.9
1월말 대비	5.3%	-1.6%	2.5%
	8.3	-3.5	10.6
12월말 대비	4.5%	7.1%	5.5%
	7.1	14.2	22.8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중국 45개 항구의 철광석 재고



▷ 중국 전역의 5대 철강재 유통재고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 철스크랩(고철)

### 글로벌 철스크랩 가격 반등 한국 수입원가 부담 '국내' 가격 상승 전망

지난 시황리포트에서 3월 하락국면은 조기에 바닥을 다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장은 제강사들의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이미 예측했다. 주요 구좌업체들은 2월과 3월 초 고점에서 재고를 대부분 방출하고, 하락국면에서 재고확보 및 재고잔량을 제강사에 납품해왔다.

제강사들의 수입 환경은 열악했다. 운임 급등은 핵심 배경이었다. 운임은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수입 원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고철 가격이 하락해도 실제 원가는 큰 변함이 없던 셈이다. 국내 고철의 이점은 부각됐다.

터키로부터 반등이 시작됐고, 일본은 FOB 4만1000엔에서 바닥을 다진 지 2주는 족히 됐다. 해외나 국내 상승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국내는 특히 급등 가능성이 있다. 제강사들의 철근 가격 인상(건설사향 8만8000원 인상)과 시중 철근 재고 부족에 따른 전기로 생산 증가가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 1. 미국

- 터키의 HMS No.1&2(8:2) 수입가격 CFR 430달러. 일주일 새 15달러 상승
- 서부지역 아시아향 오퍼 가격 440달러 이상.

cf> Camden Habas \$430 for 80:20/\$435 for shred/\$440 for PNS

May Shipment/**booked March 29**

- 터키 철근 수출 가격 FOB 625달러. 10달러 상승
- ※ 터키 철근-고철 스프레드(격차) 195달러.
- 대만 컨테이너 수입 HMS No.1&2 401달러
- 오퍼 가격 : 러시아 A3 CFR 베트남 450달러

#### ※ 빌릿 중국 수입 가격 CFR 640달러까지 폭등장

#### 2. 일본

- H2 오퍼 가격 FOB 4만1000엔에서 바닥. 공급사-수요사 관망세
- H2 445달러 HS 중국 CFR 490~500달러

#### 3. 한국 : **경량 40만 원 이상 유지, 제강사 4월 인상 돌입 관측**

제강사 납품 평균 가격(A등급 기준)

생철 44만 원, 중량 43만 원, 경량 39만 원, 선반설 35만 원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 철강재

### 글로벌 철강시장 경험하지 못한 업황 수급 가격 전망 모든 요인 상승으로 귀결 과거 경험치 의존한 '조정가능성'은 기우(杞憂)

철강 업황은 4월 '피크 시즌'에 돌입한다. 중국 철강 가격은 선행 급등했다. 2일 상해에서 열연 내수 가격은 5590위안, 철근은 5010위안으로 '5천 위안'을 돌파했다. 일주일 상승폭은 열연 380위안(58달러), 철근 240위안(37달러)에 이른다. 2월 말과 비교하면 650위안(99달러), 380위안(58달러)으로 폭등장이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수요 호조와 더불어 상승에 부채질을 했다. 한국 시장 역시 열연 95만 원, 철근 80만 원 이상의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주목할 점은 그 이상으로 오를 것인지에 있다. 경험하지 못한 업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과거의 경험치로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는 ▲공급부족과 수요회복 지속 ▲원료 초강세 ▲중국의 환급률 인하 ▲글로벌 전역의 수요회복 등의 요인이 모두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년은 올해 회복세가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조정 가능성은 아직 기우(杞憂)다.

#### ▷ 중국 철강 내수 가격 폭등

##### 중국 상해 지역의 주요 품목별 가격 현황

단위 : 위안	철근	열연	냉연	도금재	선재	후판
2021-01-29	4,300	4,560	5,370	5,850	4,400	4,520
2021-02-26	4,630	4,940	5,680	5,940	4,760	4,920
2021-03-26	4,770	5,210	5,690	5,960	4,950	5,150
2021-04-01	4,910	5,470	5,830	6,080	5,030	5,300
<b>2021-04-02</b>	<b>5,010</b>	<b>5,590</b>	<b>5,910</b>	<b>6,120</b>	<b>5,160</b>	<b>5,410</b>
(달러 환산)	762달러	851달러	898달러	931달러	785달러	823달러
<b>3/26일 대비</b>	<b>▲240</b>	<b>▲380</b>	<b>▲220</b>	<b>▲160</b>	<b>▲210</b>	<b>▲260</b>
2월말 대비	▲380	▲650	▲230	▲180	▲400	▲490
1월 말 대비	▲710	▲1030	▲540	▲270	▲760	▲890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한국 시장 4월 추가 상승 가능

	열연		철근		형강			앵글 및 채널(잔넬)			
단위 : 만 원	포스코 대응재	중국산 (SS400)	국산	중국산	국산	포스코 베트남	바레인 말레이시아	국산 채널	국산 앵글	수입산 앵글	수입산 채널
2021-01-25	90	89	74	76	89	86	85	84	84	75	77
2021-02-01	92	91	75	76	89	87	86	84	84	75	77
2021-02-08	90	86	75	75	89	87	86	84	84	75	77
2021-02-15	90	88	75	75	89	87	86	84	84	75	77
2021-02-22	90	88	75	75	89	87	86	84	84	75	77
2021-03-01	92	90	75	75	89	87	86	84	84	75	77
2021-03-08	92	90	76	76	92	87	86	84	84	73	75
2021-03-15	92	90	76	78	90	88	87	84	84	73	75
2021-03-22	92	90	76	79	90	88	87	84	84	73	75
2021-03-29	95	94	77	81	90	88	87	84	84	73	75

▷ 본계강철 한국향 오퍼 동결 : 열연 FOB 750달러/냉연 850달러/GI 890달러  
현지 오퍼 열연 FOB 770달러, 철근 680달러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철강 수급비상 '中 증치세 사실상 폐지'...열연 철근 등 600만톤 '제동'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25>

페로타임즈 4월2자

우리나라 철강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수출 증치세 환급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열연 소재를 수입하는 KG동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을 비롯해 철근, 냉연도금재 시장에서 수입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4월10일부터 수출 시 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환급률은 당초 13%에서 9%로 예측된 데서 열연 철근 등은 폐지하고 냉연도금재는 4%로 대폭 축소하는 등 예상을 뒤엎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폐지로 판단, 올해 중국산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환급률 조정은 현재 국내 전 품목에 걸쳐 심화된 공급 부족 현상과 함께 가격 강세를 지지할 전망이다. 이는 또 전세계에 철강 시장 수급을 옥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2020년 기준 총 6115만 톤의 철강재를 수출했다.

국내 시장에는 당장 가격 강세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열연강판, 중후판, 철근은 모두 환급율이 폐지됐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2020년 기준 60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2%(248만 톤) 급감했다. 열연강판 수입량은 106만 톤으로 42.4% 급감했고, 중후판(72만 톤)과 철근(27만 톤)은 24.1%, 41.5% 각각 감소했다.

수입 감소는 국내 철강 가격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한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 현황

단위 : 만 톤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연간		변동폭		1분기		변동폭	
		2019년	2020년	증감률	증감량	2020년	2021년	증감률	증감량
열연강판	13.0% → 0%	183	106	-42.4%	-77.7	39	42	5.9%	2.3
중후판	13.0% → 0%	95	72	-24.1%	-23	28	6	-78.9%	-22
철근	13.0% → 0%	47	27	-41.5%	-19.4	4	16	342.9%	12
산세강판	13.0% → 0%	1	4	218.2%	2.4	1	2	128.6%	0.9
아연도금강판	13.0% → 4.0%	120	80	-33.2%	-40	27	28	2.6%	0.7
냉연강판	13.0% → 4.0%	61	46	-24.7%	-15.1	12	11	-6.8%	-0.8
중국산 전체		850	602	-29.2%	-248.1	184	194	5.7%	10.5
전세계 합계		1,678	1,239	-26.2%	-439.3	363	322	-11.2%	-40.7

올해 1분기 수입량은 열연강판 42만 톤, 중후판 6만 톤, 철근 16만 톤 등이다. 열연과 철



근은 전년 동기 대비 5.9%, 342.9% 증가했다. 3월 신규 계약(4~5월 선적분)은 중국의 고가(高價) 오퍼에 대한 부담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수입량은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3월 기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본계강철 등이 환급을 인하여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냉연도금재는 13%에서 4%로 조정됐다. 국내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입량은 2020년 기준 80만 톤, 냉연강판은 46만 톤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33.2%, 24.7%씩 급감했다. 올해 1분기는 28만 톤, 11만 톤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재 재고 부족 현상은 전 품목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환급률 조정으로 수입 공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격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 제공 : (주)페로타임즈